

전남

억대 부농 990명 → 1,438명

(2008년) (2009년)

전남 45% 급증... 나주 253명으로 최고

영농 CEO 육성책에 5억 이상도 38명

국제 유가 및 각종 농자재값 인상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해 전남지역 억대 부농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적 육성계획을 수립한 뒤 정보 영농기술 습득과 비용 절감에 힘쓴 자치단체에서 억대 부농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남도는 8일 지난해 고소득 농업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천438농가가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990명에 비해 448명(45%)이나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축산업이 783농가(54.5%)로 가장 많았고 식량작물 253농가(17.6%), 채소 161농가(11.2%), 과수 95농가(6.6%), 가공·유통 55농가(3.8%), 특용작물 47농가(3.3%), 화훼 36농가(2.5%) 순이었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1천169농가(81.3%)로 가장 많았고 2억~3억 미만 165농가(11.5%), 3억~5억 미만 66농가(4.6%), 5억~10억 미만 32농가(2.2%)였고 10억원 이상도 6농가(0.4%)였다.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은 2천173농가다.

시·군별로는 '1억원 CEO 육성계획'을 수립, 추진중인 나주시가 253농가로 가장 많았고 '부농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강진군도 156농가에 달했다.

또 해남(128농가), 장흥(108농가) 등이 뒤를 이었다. 나주시의 경우 지난해 2008년 120농가에 비해 133농가가 새로 포함됐다.

가세로 포함됐다. 구례(21농가), 진도(27농가), 광양(29농가), 보성(39농가) 등은 1억원

시군별 1억이상 고소득 농업인 현황

Table with 2 columns: 시군, 농가수(%). Rows include 여수,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원도, 진도, 신안, and Total.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많지 않았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정책관은 "도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기반이 마련되면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이 가능해져 농가소득 증가에 한몫했다"면서 "5천만원 이상 소득 농가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고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소득 농업인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광양·여수·순천·하동·남해 등 5개 시·군 연합

'광양만권 관광공사' 설립 추진

광양시가 여수, 순천 등 광양만권 3곳과 인근 경남지역 2곳 등 5곳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가칭 '광양만권 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광양시는 "2012 여수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광양, 여수, 순천 등 3개 시를 아우르는 광양만권과 경남 하동과 남해군 등 5개 시·군에 잠재된 관광부존자원(賦存資源)에 대한 클러스터화와 체험·체류형 관광실현 등을 통한 공동 발전·번영을 위해 가칭 '광양만권 관광공사' 설립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광양시는 조만간 이들 5개 시·군에 공사설립 취지 등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보낼 방침이다.

광양시는 광양만권 관광공사 설립을 통해 5개 시·군내 도로, 철도, 항로 등 관광동선(動線) SOC구축과 관광자원 개발을 중점 추진, 공동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5개 시·군별 주요 해당 관광자원으로는 광양은 섬진강, 백운산, 광양제철소,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마로산성 등을, 여수는 여수박람회와 오동도, 경도 한려해상국립공원, 돌산대교 등을, 순천시는 2013년 순천만 국

제정원박람회, 순천만, 낙안읍성 민속촌, 선암사와 송광사 등을 들었다.

또 하동은 쌍계사, 평사리 문학관(토지 최창환박), 화계장터, 남해군은 상주해수욕장, 남해대교, 크루즈선 운항 등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5개 시·군이 회원으로 이미 구성돼 있는 기존 행정협의회와 등을 통해 관광공사 설립 기반을 다지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청수기자

고흥군 비료요용 상토 지원

고흥군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해소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비료요용 상토(床土=도관흙)를 지원한다.

군은 비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20ℓ 포대당 1천500원씩 군비 7억5천만원 등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50만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품은 군 단위 비료요용 상토공급 추진협의회를 통해 선정되며, 구매공급 방법을 협의해 결정해 농가에 많은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농협 자체계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농협은 공급업체와 구매협상을 통해 농가가 선호한 제품을 자율선택해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 문자로 설치 이전까지 마을영농회로 공급한다. 문의 061-830-5375 /동부취재본부·주각경기자 gju@

전남 야간 보육시설

400곳으로 확대 운영

전남도는 '맞벌이 주부'들을 위해 야간에 자녀를 돌봐주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현재 22개 시·군 326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올해 57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4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해당 시설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해 돌봐주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시간 연장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육대상은 만 0~4세의 취학 전 아동 중 차등보육료 지원대상과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며 기존 보육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을 경과해 최대 자정까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2012 기후변화협약 총회

여수유치위 오늘 출범

2012년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광역 여수엑스포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여수시는 9일 오후 2시 여수 시민회관에서 유치위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내외빈,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시유치위 창립총회 및 유치위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유치위원회는 2012년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시를 중심으로 순천·광양·고흥·구례 등 전남 동부권과 진주·하동·남해 등 경남 서부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별·직능별을 고려해 10명 내외의 공동위원장단과 30명 내외의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체제를 갖춘다.

창립총회에서는 운영규약 의결과 임원 및 감사선출, 유치건의문을 채택하고, 유치 다짐대회를 가진 후 시민회관에서 서교동 로터리까지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치위원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2012년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등 남해안 중심권에서 개최, 동서화합과 남해안 공동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힐 계획이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유치 당위성 논리개발과 여론을 환기하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한국과 카타르가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제16차 멕시코 당사국총회에서 개최국이 결정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계획이다.

유치위원회는 창립 취지문을 통해 "2012년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등 남해안 중심권에서 개최, 동서화합과 남해안 공동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힐 계획이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여수유치 당위성 논리개발과 여론을 환기하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한국과 카타르가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제16차 멕시코 당사국총회에서 개최국이 결정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ykpark@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나주시청 장애인 주차장 왜 좁아졌더니

246면 중 14면... 그나마 市 공무원이 이용

나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장애가족 명의로 돼있는 차량을 청사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버섯이 주차하고 있어 논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의 불만은 물론 장차 이를 이용해야 할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청사내 비좁은 주차장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

무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되도록 청사 밖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직원 A씨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 직원들이 하루 종일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며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비양심적인 행위 때문에 직원들간에도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청내 주차장은 246면이고, 이중 장애인 전용은 14면이다. /동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담양 '소쇄원' 주차료 안받는다

郡 '보존관리 운영조례' 입법예고

소쇄원(瀟瀟園)의 관리권을 갖고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담양군이 뒤늦게 관리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최근 '소쇄원 보존관리 및 운영조례'와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관람료 징수체계 등을 전면 개편하고 주차료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소쇄원은 지난 2005년부터 소유권 일부를 가진 제주 양씨 문중이 입장

료 1천원, 주차료 2천~3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 기간 거취들이 입장료 수익만 7억~10억원 가량이던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담양군은 소쇄원내 문화재 구역의 60%, 문화재 보호구역의 80% 가량이 국공유지인데도 문중 측의 주차료 징수 등을 막지 못해 탐방객들의 불만을 사왔다. /동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대인동상일부동산
(FAX)223-177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다산공인중개사
한 010-7154-6996
▶빌딩(임대용, 투자용)
▶상가매매(첨단)
▶참고및 공장용지

바다공인중개사
(063)581-5909
▶팬션건물(투자,직영,임대)
▶투자용 팬션 용지
▶투자용 전원주택 용지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최고급 건축자재 사용)
* 위치
* 화순을 전대병원년산부근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강영희
062)364-8700
H.P 010-4608-3700
지역/소매지/대지/건물/매장/지점/사업장/토지/건물/토지/건물/토지/건물